

國際工業所有權界 움직임 부산

WIPO · 蘇聯 · 中國 · 日本 · EPO 등

WIPO · 中國特許廳

特許制度 심포지엄 개최

WIPO와 中國特許廳이 공동 개최하는 「21世紀 特許制度에 관한 國際심포지엄」이 오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北京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特許制度의 國際化 ▲電算化 ▲特許문헌 조사 ▲검색 및 審査가 주로 논의되며, 中國特許廳에서 특별히 마련한 特許法制定 5주년 기념행사와 新廳舍 개관식도 가질 계획이다.

日本

特許出願 減少

지난해 日本의 特許出願 건수가 17년만에 減少 경향을 보이는 등, 工業所有權 전반에 대한 出願이 줄고있다.

日本 特許廳에 따르면 特許는 33만9천3백99건으로 87년대비 0.5%가 減少했으며, 實用新案은 17만1천6백74건으로 17.4%, 意匠은 5만1천9백36건으로 4.0%, 商標는 17만2천8백13건으로 1.7%가 각각 減少한 것으로 밝혀졌다.

日本 · EPO特許廳

特許制度 공동연구 合議

유럽特許廳과 日本特許廳은 최근 特許制度의 統一 및 운영 방식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兩 特許廳은 審査官의 파견에 합의하고, 원심분리나 프린트기관 등 技術분야에의 特許出願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상호 審査制度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공동 研究하기로 했다.

이들 兩 特許廳은 또 特許制

度の 統一 · 운영 방식의 조화는 경제발전에 필요하고, WIPO가 추진하고 있는 特許制度의 統一化條約에도 같은 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WIPO · 소련

工業所有權토론회 주최

WIPO와 소련연방 發明委員會가 공동 주최하는 「國際經濟協力에 있어서의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際討論會」가 오는 10월9일부터 1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極超音速 여객기 開發競爭 치열

美國의 워싱턴과 日本 東京을 2시간 이내로 주파하는 마하 15이상의 極超音速 여객기(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2천년대에 개발한다는 계획을 NASP(국제우주항공기)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후 각국은 尖端우주항공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NASP계획은 美항공우주국(NASA)과 美국방부가 협력, 로켓 엔진으로 비행하는 極超音速의 우주 실험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기본설계과정으로 이미 종료됐으며, 89년까지의 2단계는 機體설계 및 추진시스템의 研究단계, 3단계는 실험기의 제작 및 시험단계이다.

이 시험기의 처음 비행은 오는 93년에 이루어지고, 實用化는 2천년후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나름대로 研究를 추진중인데 프랑스에서는 유럽만의 독자적 우주스테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소형 우주항공기 「헤르메스」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英國은 완전재사용형 우주항공기(HOTOL)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HOTOL은 공기 흡수식 엔진과 로켓엔진을 함께 사용해 大氣 및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수평이착륙형 無人機로서 위성의 발사 및 궤도상에서 다양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다.

또 西獨은 우주스테이션으로의 인원 물자의 수송을 위한 우주항공기 「생거」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며, 日本은 우주 수송시스템인 「히메스」비행기 제작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